

[경제]

■ 끝나는 원·달러 환율 추락 왜? 전망은?

약한 달러 정책에 美 금리인하설 겹쳐

‘수출 할수록 손해’ 현실로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제 침체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연결돼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저해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원인과 추세 전망=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910원대로 헤어져 916.4원으로 마감됐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환율 전망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경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미·일·미·EU 금리 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요인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940원 분기점 무너져
저투자 저고용 도미노
소비침체로 이어질 듯**

했다.

송 연구위원은 “애초 내년 환율은 925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과도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며 “글로벌 달러 약세에 대한 원화가치 절상 요인이 이미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920~930원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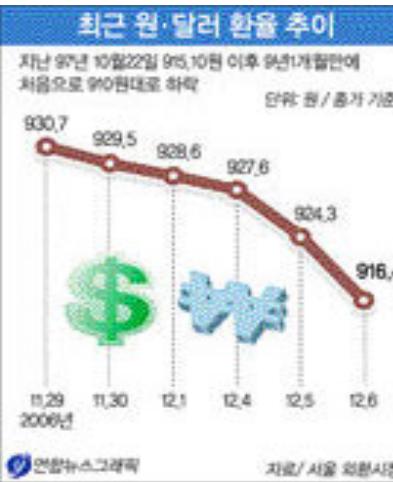
◇기업 채산성 악화, 소비에도 악영향=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직결된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투자나 고용은 물론 경상거래 전반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출기업의 순이분기점 환율은 948.28원이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950.73원과 928.26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환율하락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의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93%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 내수에 수입물가 하락이라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하락 등으로 나타나 가계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적 투자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통화당국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외화차입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외환유동성을 줄이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원자재 확보 등 생산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엔화강세 때 해외부동산을 샀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내수침체가 가속화됐던 전철을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기보다는 해외원자재 확보 등 생산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4~5%대 경제성장·환율 하락

내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한국은행 전망

4~5%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6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로 전망되고 내년 4.4%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인구증가세 등을 감안한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균 GDP는 806조 6천억원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6천 291달러였다. 이를 토대로 올해 5.0%의 성장률과

이달 5일까지의 연평균 환율(957.7원), 인구(4천 849만 7천명), GDP의 종합률 가지수인 디플레이터(0%대 추정)를 반영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8천 300달러 안팎이 된다.

LG경제연구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9천 800~2만달러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7%, 내년 성장률을 4.0%로 보수적으로 잡는 대신 GDP 디플레이터를 올해 2.9%, 내년 2.4%로 비교적 높게 전망했으며 연평균 환율은 올해가 957원, 내년을 925원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자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선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율 하락기의 경우,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조급이라도 상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단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카드회사는 현지 가맹점의 물품대금 결제요구에 따라 가맹점에 달려로 우선 결제한 뒤 국내은행에 달려 결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 때 국내은행이 카드회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동시에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 청구할 대금이 확정되는데 물건을 구입한 시점부터 청구대금의 환율이 확정될 때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도 보통 3~4일이 걸린다.

남미 오지나 아프리카 등의 경우 환율 적용 시점이 현달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결국 물건 매입시점이 아닌 3~4일 뒤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세라면 카드 사용자는 더 적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도 사전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 환차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아파트값 10% ‘껑충’

수도권 20.2%·광주 3.1%·전남 1.0% 올라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아파트 및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말까지 10% 이상의 ‘넙뛰기’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값의 경우 이미 지난달까지 11%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초 ‘집값 하락’ 전망을 내놓은 민관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연구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1.4% 올라 2002년(22.8%) 이후 4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19.7%, 20.2% 급등해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3.1%, 1.0% 상승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밀었다. 또 지방 광역시 가운데 부산(-0.8%)과 대전(-1.9%)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전체 집값도 9.6%나 올랐다. 집값은 판교 분양 이후인 5월(1.0%)과 10월(1.3%), 11월(3.1%)에 크게 유통되면서 하반기에만 5.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각각 15.4%, 16.6% 올라 ‘집값 광풍’을 실감케 했다.

더구나 이같은 집값 폭등은 연초 민관 부동산 전문기관의 ‘집값 하락’ 전망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1.0%, 서울의 아파트값은 2.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레저용 중고차값 고유가 ‘직격탄’

경유값 지속 상승에

RV 시장 침체 국면

한달새 10% 떨어져

경유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국내 RV(레저용 차량)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RV 중고차 값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올라졌다.

6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12월 들어 연식변경 등으로 중고차 값이 조급씩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RV 중고차 값은 50만~200만원 가량 떨어지는 등 다른 차급에 비해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RV의 경우 경유값 상승 및 판매부진 등으로 비인기 차종 위주로 차값이 50만~200만원 가량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전달에 비해 중고차 값이 10% 정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의 투싼 2W MX 고급형 2004년식은 1천 400만원, 테라칸 JX 2W 디젤 고급형 2006년식은 1천 650만원, 기아차의 쏘렌토 2.5 디젤 TLX 4W 2006년식은 2천 200만원, 쌍용 뉴렉스

TG(CT) 고급형은 2천만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기차’에 속하는 현대싼타페와 기아 스포티지의 경우 다른 모델들에 비해 낙폭이 적어 싼타페 2W 최고급형 골드 2004년식은 1천 650만원, 뉴스포티지 2W TLX 고급형 2004년식은 1천 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RV에 이어 12월 들어 중고차 값 하락폭이 큰 차급은 대형차로, 전달과 비교할 때 6~7%에 해당하는 100만~300만원 가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게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상오정밀	사출금형 조립 및 드릴링 마シン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955-2900
청호그룹	2007년 청호그룹 신입 및 경력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1	02-3019-5033
서울검사(주)	정규직 비경력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2	062-369-0790
동양생명보험(주)	2006 특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226-4904
한국인포데이터(주) 전남본부	광주 스키아리아 고객센터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360-0503
남해증합개발	건설기술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220-2514
광주교육문화	도서 창고 물류 관리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15	062-373-7200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1-280-0600
남해철강(주)	설계직(강구조) 제작 및 설치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2-943-8676
(주)엠엘디플러스	경리, 사무보조 직원 겸 비서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0	12/16	062-352-0090
대보그룹 대보건설(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구함	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20	062-952-1054
태성글로벌(주)	광주 지역 협력업체 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2-867-6200
(주)웅진씽크빅	씽크빅 학습지 관리 교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1577-1500
(주)웹이즈	비보사랑에서 신입 및 경력 웹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716-10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융기관 직원 절반 이상

연봉 5,000만원 넘어

전체 금융기관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연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특히 4명 중 한명은 연봉이 7천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고소득가구는 평균적으로 3.7명 정도의 가족 수에 가장 나이는 45~46세였다.

이들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500만원을 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56%를 차지해 7가구 중 1가구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 비율은 3.4분기 기준으로 2003년 9.68%, 2004년 11.95%, 2005년 12.72% 등으로 조급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